

##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 비정기 출판물 『그런가요』 발행

### ■ 비정기 출판물 『그런가요』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 2016(전시명 <네리리 키르르 하라라>, 전시기간 2016년 9월 1일~11월 20일, 주최 서울시립미술관, 예술감독 백지숙)은 **2016년 4월부터 비엔날레 개막전까지 총 4번에 걸쳐 비정기 출판물 『그런가요』를 발행**합니다. 『그런가요』는 비엔날레와 동시대 미술 언어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각기 성격과 시각을 달리하는 다양한 필자들이 발굴해내는 이슈들을 담아냅니다. 이 일련의 출판물은 비엔날레라는 일회성 대규모 이벤트가 가진 시공간적 한계를 보완하는 매체로 기획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기 다른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지식의 꿀들을 포착해보고, 나아가 그 꿀들에 반사되는 미래의 모습들을 유추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길예경(한국, 편집 및 번역자), 게이코 세이(태국/미얀마/일본, 저자 및 큐레이터), 치무렝가(남아프리카공화국, 출판 및 전시 프로젝트팀), 미겔 로페즈(코스타리카/페루, 저자 및 큐레이터)가 각 호의 책임편집으로, 장문정(미국/한국, 그래픽 디자이너)이 디자인 협업 및 자문으로 참여합니다.

### ■ 『그런가요』 1-4호

『그런가요 1호: 삼인조 가이드』는 2010년대 중반 한국 미술에서 작품을 만들고 보여주고 반응하는 체계에 일어난 변화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글쓰기를 제안합니다. 책임 편집자 길예경은 변화를 함께 겪은 이들을 필자로 초대했으며, 세 명으로 이루어진 네 팀의 일시적 글 생산 모임 <삼인조 가이드>를 구성하여, 공동의 글쓰기 대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자유롭게 주제를 정하고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성한 네 편의 글은 변화된 한국 미술 문화를 향한 무수한 접근점을 담고 있습니다. 차재민, 호키포키, 현시원, 정주영, 김영수, 구정연, 박현정, 박샤라폼, 신인아, 우아름, 용기, 윤향로, 윤원화의 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6년 4월 29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발행되었습니다.

『그런가요 2호: 하이스쿨 스펙셜』은 미술이 세상의 관습과 법칙을 넘어서고 새로운 것을 제시해 왔다는 관점에서, 교과서라는 제도적 상징에 도전하고, 학생들이 교과서 제작 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실험합니다. 책임 편집자 게이코 세이는 한국 고등학생 다섯 명을 공동 편집자이자 토론자로 초청했고, 만화, 소설, 보도사진 등 다섯 편의 자료를 사전 선정하여 토론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교과서 제작자가 되었다고 상상하면서 직접 교과서용 자료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수록된 자료들은 모두 더 깊이 있는 토론을 이끌어낼 만한 것들로,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층위의 독자들이 이를 만나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며 열린 토론을 이어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016년 5월 30일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발행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출판 및 전시 프로젝트 팀인 치무렝가가 책임 편집을 맡은 『그런가요』 3호는 **치무렝가의 범아프리카 계간지 『크로닉』의 특별호 형식**으로 본토 아프리카와 디아스포라 아프리카의 새로운 SF 그래픽 글쓰기를 선보입니다. 『그런가요』 3호에는 하산 블라심, 피비 보스웰, 하모니

홀리데이, 니킴 싱, 마지 엘 사피, 브리즈 요코, 네이티브 마카리 등을 비롯한 여러 필자들이 참여하며, 2016년 8월 초 발행 예정입니다.

『그런가요』 4호는 미겔 로페즈가 책임 편집을 맡았으며, 정치적인 것에 대한 새로운 언어를 페미니즘과 퀴어 정치학의 언어를 통해 재구상 합니다. 줄리아 브라이언-월슨, 카를로스 모타, 로렌스 라 폰테인-스토크스, 외불 두르무족루, 자블라니 페레이라 등을 비롯한 여러 필자들이 참여하며, 2016년 8월 중순 발행 예정입니다.

#### ■ 배포 및 연계 프로그램

『그런가요』 1 호와 2 호는 현재 국내 미술 관련 기관과 서점에 무료 배포 중이며, 앞으로 발행될 3, 4 호와 함께 비엔날레 전시 기간까지 지속적으로 국내외 주요 관련 기관들에 배포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판은 2016 년 7 월 초부터 <미디어시티서울> 2016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2016 년 9 월 1 일부터 11 월 20 일까지 열리는 비엔날레 전시 기간 동안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2 층에서 『그런가요』 총 4 호를 만드는 과정 및 지면의 한계상 다 심지 못한 자료들을 한 자리에서 보여주는 출판물 섹션을 마련하여 독자와 관객들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전시 기간 중 편집위원들이 직접 독자와 관객들을 만나고 이야기 나누며 새로운 토론을 이어가는 공개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자료 다운로드 웹하드 : <http://webdisk.esoul.go.kr>

ID:bsjihye / PW:sema2013

문의: [press@mediacityseoul.kr](mailto:press@mediacityseoul.kr)

**※ 편집위원 약력****• 길예경**

실험미술을 공부한 후, 주로 책과 잡지에 글을 쓰거나 번역을 해왔다. 월간 『디자인』에서 객원기자로, 시각문화계간지 『저널 볼』에서 편집위원으로 일했고, 공동체미술프로젝트 『파산의 기술記述』(2011)과 4 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에 참여했다.

**• 게이코 세이**

게이코 세이는 저자이자 큐레이터이다. 미디어, 미디어 아트, 미디어 액티비즘, 전환기의 사회 등이 주된 관심사이다. <도큐멘타 12 매거진>의 에디터이자, 도큐멘타 12 매거진 프로젝트에서 동남아시아 지역 코디네이터로도 활동했다. 세계 여러 국가의 교육기관에서 강연과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고, 현재는 미얀마에서 2002 년도 시작한 필름과 비디오, 예술과 디자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치무렐가**

치무렐가는 2002 년 응토네 예자베가 설립하였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기반으로 활동 중이다. 매거진 발행, 출판, 방송 등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출판 편집과 전시 기획 활동을 위한 플랫폼이자 온라인 자료센터의 기능을 하기도 한다.

**• 미겔 A. 로페즈**

미겔 A. 로페즈는 코스타리카 산호세의 떼오레티카와 라도 브이에서 저자, 연구원,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동시대 라틴아메리카 정치의 이해와 참여에 수반되는 협업의 역학과 전환, 그리고 남반구 시각에서 본 동성애자들의 역사 다시 쓰기를 연구한다.

**• 장문정**

그래픽 디자이너이다. 월간 『디자인』과 월간 『아트』에서 편집 디자이너로, 에이지아이 소사이어티 (AGI Society)에서 초창기에 대표와 아트디렉터로 일했다. 현재 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미술대학 그래픽 디자인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시각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공간과 배치의 관계성, 가치와 상대성, 시각 내러티브와 트랜지션, 색채 시스템에 대해 관심이 많다.